

충남리포트 제186호

# ChungNam Report

2015. 10. 8.

## CONTENTS

### 〈요약〉

1.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수요조사 필요성
2.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수요조사 분석
3.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수요 조사 시사점
4.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활성화 방향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김 지 훈

충남시민재단 실행위원장, [cnngofund@hanmail.net](mailto:cnngofund@hanmail.net)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의 교육의 횟수와 참여 유형, 내용 등 교육 실태 파악을 통해 향후 시민사회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자 함.

### 요 약

-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교육은 시민사회 운동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여건상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충남의 활동가 교육 시간과 예산 등은 부족한 편이며, 교육 내용으로는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고, 재충전과 연수, 교양 등 활동가의 심과 비전 교육은 적었음
- 활동가들은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 혁신 등 비전과 전망에 대한 교육 욕구가 컸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실무와 직무 역량을 높이는 교육뿐만 아니라 재충전과 국·내외 연수 등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많았음
-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중간 기관의 필요성과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사업 등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에 공감함
- 충남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며,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 강사 리스트 공유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협의하고 연구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함



#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수요조사 필요성

## 01

- 1987년 이후, 한국 시민사회는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주민자치, 환경, 교육, 생활,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의제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충남 시민사회 또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공동의 연대와 협력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특히 충남은 내포 신도시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참여형 행정으로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충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343개(2012년)이지만 충남의 시민사회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불균형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재생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교육은 시민사회 운동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지역의 조건상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교육수요 조사를 통해 충남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들의 교육의 횟수와 참여 유형, 내용 등 교육 실태 파악을 통해 향후 시민사회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자 함
- 충남시민사회의 교육 관련한 요구사항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활동가 역량 향상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도움을 주고자 함

## ▶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수요조사 분석

### 1) 인적·단체 구성 현황

- 충남의 시민단체 및 공익활동 기관의 상근 활동가 및 임원, 회원 등 116명을 대상(남성 54%, 여성 46%)으로 2014년도 조사임
- 조사대상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 2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남
  - 이는 40대 활동가들이 충남지역 시민단체 주요 활동가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30대 활동가를 포함하면 3~40대가 70%를 넘게 차지한데 비해 20대 활동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사회 단체에 청년 활동가들의 유입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됨

응답자수 108명

나이	응답수	비율(%)
20대	15	13.9
30대	21	19.4
40대	56	51.9
50대	14	13.0
60대 이상	2	1.9

- 활동 경력은 1~2년 경력이 35.5%로 가장 많았고, 6~10년 경력과 15년 이상이 19.6%로 다음이었으며, 10~15년 12.1%, 3~5년이 13.1% 순이었음
  - 이는 시민단체 활동 경력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활동가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중간에 활동을 그만둔 경우가 많아 신규 활동가가 많은 것임
  - 10년 이상 장기 활동경력이 31%로 나타난 것은 지역 시민사회의 풍부한 경험과 현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응답자수 107명

활동경력	응답수	비율(%)
1~2년	38	35.5
3~5년	14	13.1
6~10년	21	19.6
10~15년	13	12.1
15년 이상	21	19.6

● 조직 형태는 일반 시민사회 단체가 71.9%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 19.3%, 시민(주부)모임 4.4%, 포럼/연구모임 1.8%, 1인 조직 0.9%, 기타 1.8%임

● 상근활동가 수는 5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11인~20인, 6인~10인, 1인 조직, 상근자 없다 등의 순임

- 일반 단체의 경우 5인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상근자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시민운동 단체로, 상근 인력이 상당수 부족한 것을 보여줌

응답자수 111명

상근활동가	응답수	비율(%)
상근자 없음	8	7.2
1인 조직	11	9.9
5인 이하	56	50.5
6~10인	14	12.6
11~20인	15	13.5
20인 이상	7	6.3

● 활동 분야에서는 시민사회 활동 분야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경제 20%, 사회복지 12.4%, 자원봉사 6.7%, 풀뿌리운동 3.8%, 평생교육 1%, 기타 6.7%임

## 2) 내부 활동가 연간 교육 현황 및 내용

● 내부 활동가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 및 기관에서 1년을 기준으로 교육 횟수는 1~2회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이 전혀 없는 곳도 12.1%로 조사됨

- 결과적으로 2회 미만이 절반에 가까우며, 5회 미만은 76.8%로 활동가 내부 교육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음
- 특히 소규모 조직일수록 내부 활동가 교육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수 116명

교육 횟수	응답수	비율(%)
교육이 없다	14	12.1
1회~2회	40	34.5
3회~5회	35	30.2
6회 이상	27	23.3

비율(%)

구분	교육이 없다	1회~2회	3~5회	6회 이상
상근자 없음	8.3	12.8	0.0	7.4
1인 조직	50.0	7.7	6.1	0.0
5인 이하	33.3	56.4	66.7	29.6
6~10인	0.0	17.9	6.1	18.5
11~20인	8.3	0.0	12.1	37.0
20인 이상	0.0	5.1	9.1	7.4

● 내부 활동가 교육 내용은 NGO의 이해, 사회경제, 자원봉사, 사회혁신 등 시민사회운동 일반이 18.9%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분야의 법, 제도, 정책, 사례도 18.5%로 많았음

- 지역 단체들 대부분 내부 교육을 단체 사업 내용과 연관된 직무 교육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조직관리나 신입 활동가 교육 등 조직 관련 내용이 많았음
- 이에 비해 교양이나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국내·외 연수 등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나, 휴식 및 재충전 관련 교육은 적은 것으로 조사됨. 그리고 기금 모금이나 PT, 회계, 영상 등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내용도 낮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활동가들의 장기적 비전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의 정체성과 씬,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내부 교육이 어려운 이유로는 바쁜 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예산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 부족, 교육 담당자 및 인력 부재, 강사 발굴의 어려움, 교육 기획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지역 단체들의 조건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상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량이 많은 이유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우며, 재정적 어려움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큰 이유로 조사됨

응답자수 113명(중복응답)

교육내용	응답자수	비율(%)
예산의 부족	59	28.9
바쁜 활동으로 인한 시간의 부족	71	34.8
교육담당자(팀) 및 인력의 부재	19	9.3
교육 필요성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22	10.8
활동가 교육내용 기획의 어려움	15	7.4
교육을 수행할 적절한 교육자(강사, 학습안내자 등) 발굴의 어려움	18	8.8
기타	0	0.0

- 외부 교육을 보더라도, 1년에 조직 외부 교육의 참가 횟수는 1~2회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3~5회 26.1%, 참여하지 않는다는 13%, 6회 이상은 12.2%로 낮게 나타남

### 3) 활동가 교육의 충분 여부

- 활동가 교육이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하지 않다가 절반이 넘었으며, 매우 불충분 하다는 포함해 65.3%로 조사됨

응답자수 107명

만족도	응답수	비율(%)
매우 충분하다	6	5.6
충분한 편이다	31	29.0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56	52.3
매우 불충분하다	14	13.1

- 교육 비용 충당 방식으로는 소속단체 지원이 57.7%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자부담도 29.8%로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는 국내외 지원프로그램 6.7%였으며 개인적 모금은 한명도 없었음
  - 이러한 결과는 많은 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한 활동가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면서 교육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수 104명

교육비용	응답수	비율(%)
자부담	31	29.8
소속단체 지원	60	57.7
국내외 지원프로그램	7	6.7
개인적 모금	0	0.0
기타	6	5.8



#### 4) 향후 필요한 교육

-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NGO 이해, 사회경제, 자원봉사, 사회혁신 등 시민사회 운동 일반에 관한 내용이 18.4%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는 조직관리 및 리더십 16.7%, 재충전프로그램 15.3%, 담당분야 법, 제도, 정책 사례 13.9%, 국내·외 연수 11.6%, 실무 개발 10.5%, 교양 9.9%, 기금 모금 3.4%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수 113명

교육내용	응답수	비율(%)
시민사회운동일반 (NGO이해, 사회경제, 자원봉사, 사회혁신 등)	54	18.4
담당분야법, 제도, 정책, 사례	41	13.9
PT, 엑셀, 회계, 영상 등 실무개발	31	10.5
기금모금	10	3.4
조직관리 및 리더십	49	16.7
국·내외연수	34	11.6
재충전프로그램	45	15.3
인문학, 문화 등 교양	29	9.9
기타	1	0.3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시민사회운동 일반 (NGO 이해, 사회경제, 자원봉사, 사회혁신 등)	7	6	28	6	2
담당분야 법, 제도, 정책	4	7	22	4	2
PT, 엑셀, 회계, 영상 등 실무개발	6	5	15	1	0
기금 모금	1	2	3	2	0
조직관리 및 리더십	5	10	28	3	0
국·내외 연수	5	6	12	5	2
재충전 프로그램	4	13	21	6	0
인문학, 문화 등 교양	3	8	12	6	0

- 교육이 필요한 우선 대상자로는 응답자 114명 중 신입 활동가가 5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 희망하는 교육 방식으로는 응답자 112명 중 전문가 강의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주제 발표 및 상호토론, 현장체험 등의 순으로 나타남

◎ NGO를 위한 교육기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로 대부분 동의했음

응답자수 110명

필요성	응답수	비율(%)
필요하다	99	90
필요하지 않다	6	5.5
모르겠다	5	4.5

## 5)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충남시민재단의 역할은

◎ 충남지역 시민사회의 지원 역할을 위해 출범한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시민재단이 중심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가장 많은 15.5%의 응답자들이 활동가 교육이라고 답함

- 다음으로는 활동가 재충전 및 지원, 단체 간 협력, 정보 제공, 지역 협력 및 조사 사업,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순으로 충남시민재단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음
- 그 외에 시민교육, NGO 자립지원, NGO 설립지원과 사무 및 교육 공간 제공 등의 역할도 주문했음
- 이러한 결과는 활동가 교육, 활동가 재충전 및 지원 등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충남시민재단의 중심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체간 협력, 지역 협력 및 조사사업,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등 단체 간 네트워크를 비롯해 단체와 지역 간, 단체와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를 주요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함.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의 자립 및 설립 지원, 공간 제공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제기함

응답자수 114명

역할	응답수	비율(%)
정보 제공	41	12.0
활동가 교육	53	15.5
단체 간 협력	48	14.0
지역협력 및 지역조사사업	38	11.1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35	10.2
사무 및 교육 공간 제공	14	4.1
NGO 설립지원	14	4.1
시민교육	26	7.6
활동가 재충전 및 지원	51	14.9
NGO 자립지원	23	6.7

##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수요조사 시사점

# 03

- 상근자 규모로는 일반 단체의 경우 5인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시민운동 단체의 경우 상근 인력이 없는 경우도 많았음. 연령층으로는 40대 활동가가 절반에 가까웠고 30대까지 합치면 3,40대 활동가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20대 활동가가 부족해 청년 신입 활동가의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응답자들의 5년 이상 활동가들이 51.4%에 가까웠고, 10년 이상 활동가도 31.8%나 차지해 중견 활동가들이 지역 시민단체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경험 있는 활동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이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활동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성과 지역 활동의 연속성에는 불안 요소가 있어 향후 시민사회 활성화 측면에서 중견 활동가에 대한 비전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 단체들의 활동가 내부 교육이 2회 미만이 46.6%로 절반에 가까웠고, 교육이 없는 경우도 12.1%나 차지해 많은 단체들이 활동가를 위한 교육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원인으로는 예산의 부족과 시간 부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 단체들의 규모가 작아 교육 예산을 따로 만들 수 없는 형편이며, 상근자 수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활동가 자신을 위한 교육을 받을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 내용으로는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 재충전과 연수, 교양 등 활동가의 쉼과 비전 교육은 적었음. 향후 활동가들의 안정적 전망과 비전을 위한 중장기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외부 교육도 5회 이하가 대부분 차지해 전반적으로 충남지역 단체들의 경우 활동가 교육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비용 또한 단체 지원이 많았으나 자부담도 29.8%나 차지해 교육 조건의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자기 단체와 연관성도 있지만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적경제, 사회 혁신 등 단체와 활동가의 비전과 전망에 대한 교육 욕구가 컸으며, 그 속에서 자신의 실무와 직무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원하고 있었음. 또한 재충전과 국·내외 연수 등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많았음
- 각 단체에서는 신입활동가에 대한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음. 이는 최근 신입 활동가들이 과거 유경험자들의 경우도 있으나 많은 상근자들이 시민단체 경험이 없어, 단체의 정체성과 전망에 대한 인식 공유가 충분하지 않아 상근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또한 사회적경제나 자원봉사, 여성, 인권 등 새로운 영역의 시민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체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수행 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중간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모든 활동가들이 공감대를 나타냄. NGO 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임
- 또한 충남시민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활동가 교육, 활동가 재충전 및 지원과 단체 간 협력, 정보 제공, 지역 협력 및 조사 사업 등 활동가들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에 공감함

##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활성화 방향

# 04

- 충남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들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함
  - 지역의 많은 단체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규모에 비해 업무량은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조건에서 활동가 교육이 우선순위일 수가 없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교육을 담당할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사회경제 영역에서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영역에서는 현재로는 충남시민재단이 이러한 역할을 진행하고, 향후 충남NGO 센터 설립을 통한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또한 활동가 교육을 단체 간 협력과 공동 사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이는 시민사회의 공통된 사회 인식과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미래에 대한 비전 등 시민 사회 일반에 대한 공동 교육은 향후 단체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일조할 것임
- 충남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활동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
  - 충남에서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비롯해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등 기관의 교육 기능의 일부를 시민사회 교육 내용과 연관 지어 공공기관의 예산과 전문성을 통해 시민사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현재 각 단체에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도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세미나나 강의는 많은 반면 활동가들의 전망이나 역량강화 측면의 교육들은 부족함. 이러한 단기적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운동적 전망을 찾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활동가들의 교육에 대한 단체와 활동가들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음

- 활동가 교육에 대한 단체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활동가들 또한 교육 수요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실천적 모습은 약함. 장기적 활동의 전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함

● 충남의 시민사회 활동가 교육을 비롯한 시민교육을 위한 연구와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함

- 사회일반에 대한 총론에서부터 실무역량 강화, 교양, 여가활동, 국내·외 연수 등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 강사 리스트 공유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협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함

● 충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좋은 시민이 있을 때 좋은 지방정부가 있다는 민-관 협치적 관점에서 시민단체 지원 및 시민활동가 교육 지원 등 시민사회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 함

김 지 훈 실행위원장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

070-7782-3254, cnngofund@hanmail.net

※ 본 연구는 2014년도 도민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과제를 일부 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임

## ◆ 참고 자료 ◆

김운호, 경희대NGO대학원: '한국 NGO 교육의 현황과 방향'

서울NPO센터(2014): 'NPO활동가 교육수요 조사 및 현황조사 보고서'

임길진NGO스쿨(2006):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교육수요 조사'

장수찬(2013): '충남도 시민사회 기초조사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4): 'NGO 교육훈련사업 실태와 과제'

## 충남리포트(2015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5-01	충남 야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휘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균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김동완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삼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야·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더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중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17
2015-30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홍성효	2015.07.23
2015-31	현대자동차와 충남의 상생발전 방안	김양중	2015.07.31
2015-32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충남의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책제언	명형남	2015.08.12
2015-33	미국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을 위한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홍원표·강수현	2015.08.20
2015-34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리방안	이관률·송두범	2015.08.27
2015-35	충남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분석	이준표	2015.09.03
2015-36	충청남도 특성에 적합한 물 재이용 체계 구축방안	이원대·김영일	2015.09.10
2015-37	충청남도 온실가스배출 특성 및 전략적 대응 방향	정종관 외	2015.09.17
2015-38	충남도민의 언론매체 이용 실태와 효율적 정책홍보 방안	박경철	2015.09.22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충남리포트

# ChungNam Report